

2024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2024년 8월 11일(주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주 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시편 34:14)

목 적

1.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하여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함
2.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실천을 통하여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함
3.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
4. 한반도 평화통일 및 지구촌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대함

배 경

1. 광복절인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15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세계교회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 예배문을 사용해주기를 소망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위한 예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4.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5.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발표하여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하였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분단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NCCK는 이 두 선언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하였고,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Korea Peace Appeal) 전 세계교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친지,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2024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모임]

※ 일어섭니다

입례 주악에 맞추어 청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상징물을 들고 입장합니다.

† 남측 성경: 공동번역.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 북측 성경: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번역하고, 북측교회가 실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 한 몸 십자가: 각기 다른 이름과 개성을 지닌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숲을 이룹니다. 한 몸 십자가는 서로 다른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 아래에서 조화와 평화, 일치로 이루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 백두산 돌: 분단의 아픔이 평화와 통일로 치유되기를 원하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입례송 오소서 오소서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평 화 의 - 임 금



우 리 가 - 한 몸 이루게 하 - 소 서

1. 평화의 2. 정의의 3. 생명의

예배로의 초대 인도자

인도자: 창조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온 세계의 경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돌봄 안에 두셨습니다.

회 중: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창조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소서.

인도자: 성령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연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국경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우리 안에 불을 붙이시어 우리를 믿음, 정의, 화해를 위한 열정으로 채우십니다.

회 중: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

인도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사형을 선고하며 진리를 억누르려 했던 세상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제자도의 대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였고 주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회 중: 주님, 우리가 당신의 진리와 평화의 빛을 비추도록 도우소서.

개회찬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찬송가 410장) 다함께

(통일 468)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410

평안과 위로

There comes to my heart

SWEET PEACE: 8.8.8.7. REF.

P. P. Böhren, 1887

평강의 주께서 친히--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삼후 3:16)

P. P. Böhren, 1887

보통으로



1.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2.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주셨으며
3.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4.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예수님과 난 받아 큰 평화 누리도다
 주 하나님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후렴
 평 화 평 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쉬운 기타코드 (capo=1st) Ab → G Eb7 → D7 Db → C

기 원 인도자

인도자: 하나님, 이제 우리 한민족이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걷고자 합니다. 남북교회에 힘을 주셔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의 정신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땅, 평화로 하나가 된 땅,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회 중: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앉습니다)

죄의 고백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당신의 길에서 다른 길로 벗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우상처럼 여겨 주님이 주신 화해의 명령보다 중시합니다. 이웃의 상처를 무시하며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만을 돌보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음을 걸지만, 금세 지치고 힘을 잃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길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채워 주시고, 당신의 자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응답송 주여, 주 예수여 다함께

Je - sus, re - mem - 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주 여 주 예 수 여 지 를 기 억 해 주 소 세

Je - sus, re - mem - ber me when you come in - to your king - dom.
주 여 주 예 수 여 달 선 나 라 임 하 실 때

용서의 선언 인도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말 씬

오늘의 기도

성경봉독

마태복음 5장 23-24절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공동번역)

설 교 가장 절실한 ‘화해’와 ‘통일’

감사와 응답

202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시편 10편에 기대어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담을 넘나들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서로를 자매 형제가 아니라 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을 담은 채 주고받던 연락들은 차례차례 끊어지고, 이제 비방과 두려움만 하늘 바람 타고 오고 갑니다.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고, 모든 길마다 지뢰가 덧씩워지며, 골짜기마다 분노의 메아리가 퍼져가고, 봉우리마다 날 선 초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들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힘을 키워야 한다’ 되뇌더니,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곳 저곳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 않는데도, 또다시 커다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 앞바다에 다른 나라의 싸움배들이 오가고, 미사일과 폭탄이 계속 썰여만 갑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 건지, 이 나라 저 나라 머리를 맞대고 더 크게 싸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며 저주와 거짓과 포악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증오와 전쟁의 역사를 외면하고 정당화해 온 우리의 해묵은 죄를 주님 발 앞에 쏟아냅니다. 적개심에 휩쓸려 자매 형제를 저주하고 적개심 한 우리의 낡은 죄도, 절망과 낙심에 용기를 잃은 우리의 죄도 함께 쏟아내오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평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펼치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국민의 손을 얹겠습니다.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힘써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평화를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하신 말씀을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마다 뜨겁게 새겨주십시오. 서로가 성령의 매는 줄로 엮힌 한 몸이라는 진리를, 평화의 주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라는 고백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평화의 하나님이니,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모든 이들이 한(조선)반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북·북남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교회협이 조그런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168

둘이 하나가 되리

류형선

류형선

자진 곳거리

Dm F Dm

1. 마른 뼈 들에게 생 기를 불 어 넣 어 - 주 셧 네
2. 나 무 막 대 기 를 불 여 서 하 나 되 게 - 하 셧 네

Dm F Dm

뼈 와 뼈 를 모 아 힘 줄 을 끈 게 이 어 - 주 셧 네
따 로 둘 이 었 던 막 대 기 끈 게 이 어 - 주 셧 네

Gm

살 불 이 고 가 죽 의 위
둘 이 서로 하 나 되 게

살 불 이 고 가 죽 의 위
둘 이 서로 하 나 되 게

Am

주 의 숨 결 힘 - 깃 불 어 서
주 의 손 이 불 들 고 있 으 리

주 의 숨 결 힘 - 깃 불 어 서
주 의 손 이 불 들 고 있 으 리

Dm Bbmaj7 Dm

마 른 뼈 들 에 게 생 기 를 불 어 넣 어 - 주 셧 네
둘 이 하 나 되 게 하 리 라 둘 이 하 나 - 되 리 라

Gm G

두 번 다 시 두 번 다 시

Dm

죽 는 일 없 으 리 사 망 은 없 으 리
나 뉘 지 않 으 리 헤 어 짐 없 으 리

Dm

흠 흠 - 흠 흠 -

봉헌기도

세상으로 나아감

(일어섭니다)

파송사

말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 이 평화를 숨긴 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 주변의 가깝고 먼 모든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이 평화를 수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폭력의 모든 음모보다 더 강력합니다. 평화는 위험한 이상 숭배에 도전합니다. 평화는 갈등의 경계를 넘어 우리를 연대하게 합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차고 넘쳐흐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회 중: 또한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 께: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옆의 자매와 형제와 함께 그
 평화를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 송 **평화가 있기를** 다함께

116

평화가 있기를

류형선

류형선

$\text{♩} = 92$ Fm⁷ B^{♭7} E[♭] E[♭]/D Cm G⁷ A[♭] B^{♭7}

1. 평화가 있기를 - 평화가 있기를 -
 2. 너희들 가운데 - 깃 - 든 평 화 는 -
 3. 해 뜨는 곳 에 서 - 저 무는 곳 까 지 -

E[♭] G⁷ Cm G⁷ A[♭] A[♭]m/B[♭] E[♭] E[♭]/D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 어 있 기 를 -
 죽 - 음의 능 력 보 - 다도 크 - 고 깊 으 니 -
 너희안에 깃든 참평화를 널 - 리 전 하 라 -

Cm Gm⁷ A[♭] E[♭]/G Fm B[♭]

힘 을 - 내 라 - 힘 을 - 내 라 -

E[♭] G⁷ Cm G⁷ A[♭] A[♭]m/B[♭] E[♭]

끝 날 까 지 내 평 - 화 가 함 께 할 것 이 니 -

축 도

알려드립니다

첨부) 202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2024년 한(조선)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시편 10편에 기대어

주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담을 넘나들던 게 엇그제 같은데, 이제 서로를 자매 형제가 아니라 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희망을 담은 채 주고받던 연락들은 차례차례 끊어지고, 이제 비방과 두려움만 하늘 바람 타고 오고갑니다.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고, 모든 길마다 지뢰가 덧씩워지며, 골짜기마다 분노의 메아리가 퍼져가고, 봉우리마다 날 선 초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들보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힘을 키워야한다’ 되뇌더니, 이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이 곳 저 곳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도, 또 다시 커다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조선)반도 앞바다에 다른 나라의 싸움배들이 오가고, 미사일과 폭탄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란 건지, 이 나라 저 나라 머리를 맞대고 더 크게 싸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으리라’며 저주와 거짓과 포악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증오와 전쟁의 역사를 외면하고 정당화해온 우리의 해묵은 죄를 주님 발 앞에 쏟아냅니다. 적개심에 휩쓸려 자매 형제를 저주하고 적개시한 우리의 낡은 죄도, 절

망과 낙심에 용기를 잃은 우리의 죄도 함께 쏟아내오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일어나겠나이다.

주님, 손을 드십시오.

평화를 빛으시는 주님의 손을 펼치십시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는 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의 일에 우리 민민의 손을 얹겠사오니, 손을 드십시오. 우리가 힘써 손을 들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평화를 향한 열망을 주십시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하신 말씀을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마다 뜨겁게 새겨주십시오. 서로가 성령의 매는 줄로 엮힌 한 몸이라는 진리를, 평화의 주를 머리로 모신 한 지체라는 고백을, 평화와 화해와 통일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믿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주님은 언제까지나 평화의 주님이시니,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모든 이들이 한(조선)반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북·북남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교회협이 조그런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2024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아멘,

